

2009년 뉴스레터
10월호

차례

01

연구활동
연구집담회

02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03

학술교류
일본 사회과 교사
초청 세미나

04

일본비평언론소개
연구소 신규임용
연구소 향후 일정

연구활동

○연구집담회

일본연구소는 국내외 일본연구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연구집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 일본의 생활 세계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역학을 그것의 역사적 맥락과 사상적 토대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6회 연구집담회 요약문

주제: 제국 일본의 음악정책 - 중일 전쟁 전후의 음반검열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지선(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자: 이준희(성공회대학교)

전시하 일본의 음악통제는 음반검열을 시작으로 음악가·무용가의 등록제도, 대정익찬회 문화부의 음악기본방침에 의한 교화활동, 음악정신대의 활동, 후생음악활동, 음악잡지의 통합, 결전체제 하의 연주회 등에서 나타나고, 1940년대에 들어서는 미영음악 추방운동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권력의 다양한 통제정책 중

대중오락을 담고 있는 음반에 대한 검열은 일본이 당시 문화권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전시 하에 대중을 선동, 통제하고 문화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중음악정책을 펼쳤는지 중일전쟁 전후의 시기 음반검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 제 7회 연구집담회 요약문

주제: 근대 일본 불교의 동점(東漸) - 북미 개교(開教) 1세기를 평가하며 -
발표자: 윤기엽(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수연구원)
토론자: 신규탁(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일본 메이지기의 급속한 사회발전에 대응하여 전개된 근대불교의 다양한 현상들 중 하나가 각 종파에서 수행한 해외포교이다. 아시아 지역의 포교가 일제의 아시아 침략과정에서 수행되었다면, 북미지역의 포교는 하와이와 미대륙으로 건너간 일본인 노동이민이 증가하면서 이루어졌다. 일본인의 미국 이민사와 연계되어 전개된 북미지역 포교는 일본불교의 해외포교 전반을 파악하거나, 동아시아 불교의 서구진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19세기 말경에 시작된 북미지역 포교는 정토진종(淨土眞宗), 정토종(淨土宗), 임제종(臨濟宗) 등

국내의 유력종파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사쿠 소엔(釋宗演), 사쿠 소카츠(釋宗活),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등의 활동으로 서구에 선불교(禪佛敎)가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포교활동은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종전 후에는 대부분의 활동이 재개될 수 있었고, 다양한 포교사업이 전개되었다. 전과는 달리 일본경제의 성장을 배경으로 보다 호전된 여건 속에서 포교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진종 본원사과는 1999년 미국포교 100주년을 맞았다.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들에게 올바른 일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일본전문가와 함께 일본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루어 온 일본전문가 전문가 초청 세미나 108회, 109회, 110회, 111회가 열렸다.

■ 제 108회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人を神に祭る風習再考

(일본문화에 있어서 사람을 신으로 숭앙하는 풍습에 대한 재해석)

강연자: 고마츠 가즈히코 (小松和彦,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연구부 교수)

일시: 2009년 9월 28일 월요일

코마츠 가즈히코 선생님은 일본인 또는 일본문화를 이해하는데 그 신(神) 관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신관념은 일본인이란도 용이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입구로서 인간을 신으로 숭앙하는 풍습과 습속, 즉 '인간신사(人間神社)'에 착목해 설명을 시작했다. 이는 지금 정쟁의 온상이 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성립의 배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 역시 기층

에 흐르는 신관념의 구체적인 표상으로서 일본의 '인간신'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으로 바라보는 풍습에 대해서까지 재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대에서 근대까지 구체적인 인물의 인생과, 그를 섬기는 신사의 창립의 경위를 검토하는 것에 의해, 일본인의 신관념, 세계관 그리고 사상의 일단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인의 신관념, 추도, 위령, 기념장치와의 비교연구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 역시 지적했다.



■ 제 109회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일본 근세의 외교정책의 기층

강연자: 허남린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일시: 2009년 9월 29일 화요일

허남린 선생님은 무위(武威)와 신국(神國)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도쿠가와(徳川) 시대 외교정책을 살펴보았다. 무위(武威)란 무사가 중심이 되어 권력을 행사했었던 근세 일본의 무사사회에 관한 개념이었다. 도쿠가와 막부는 실질적인 무력(practical power)으로서의 무위를 사용했던 경우는 상당히 적었고, 이른바 'soft power' 나 'smart power'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무위를 사용하였다. 다른 하나의 개념으로서 신국이란 천황이 근세 일본사회의 중심에 있었음을 뜻하는 개념이었다.

이 두 가지 무위(武威)와 신국(神國)이 근세 일본 외교정책에서 핵심적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허남린 선생님은 또한 전근대 시기의 조선과 일본의 관계 역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전근대 시기 조선과 일본은 서로를 경시하는 관계였음을 밝히고, 이는 조선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또한 일본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조선과 일본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실질적으로 연출된 것이 임진왜란과 조선통신사였고, 근대에 들어서서 식민지화였다고 설명했다.



■ 제 110회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NHK와 일본사람 - NHK가 흔들리면 일본이 흔들린다

강연자: 후지모토 토시카즈 (藤本敏和,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일시: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현재 NHK 방송에 관한 설문조사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고, 앞으로 계속 신경써야 할 문제점으로 조직개혁 문제,

공정성 문제, 정치개입으로부터의 자유 문제, 수신료제도의 유지 여부, 디지털 방송 여부등을 꼽았다.





■ 제 111회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전후 일본의 시민과 역사인식
<동아시아의 고대를 생각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강연자: 이성시(와세다대 아시아지역문화 앤한싱
연구센터 조선통화연구소 소장)
일시: 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강연자는 일본학계에서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이 현재는 가야지역의 발굴조사나 새로운 연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고대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소위 일본의 ‘강고한 지배’를 전제로 묘사해왔던 일본고대사와 대외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다. 즉, 일본고대사에서 통일국가 성립후 임나정벌이라던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 후 조선파병, 19세기 메이지 국가의 성립과 정한론의 등장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성시 선생님은 이러한 유아독존적 일본사관이 시민사회의 운동을 통해 어떻게 1970년대 들어 극복되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 제 112회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일본의 호랑이 문화
강연자: 최경국(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주임교수)
일시: 2009년 10월 21일 수요일

강연자는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호랑이에 관한 문헌들과 호랑이 그림을 추적하였다. 호랑이는 일본서기에서 백제로 건너간 일본인이 호랑이를 죽이고 껍질을 벗긴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호랑이는 한반도로 건너간 일본인들의 무용담 속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일본의 무사도를 찬양하기 위한 이런 호랑이 퇴치담은 책이나 그림등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호랑이 무늬가 장식무늬로 유행하고, 호피가 주술성을 가진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발표자는 이러한 현상이 국수적인 분위기가 짙어질 때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술교류

○일본 사회과 교사 초청 연수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워크샵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2000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일본사회과교사 초청 연수”를 실시하여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교체와 2011년에는 한일합방 100주년을 맞는다는 특별한 역사적 시점에 즈음하여 올해 10주년을 기념하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발전 및 아시아에 있어서의 교육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10월 23, 24일 양일간 심포지엄 <교육의 현장에서 바라본 한일 역사와 미래> 및 워크샵 <한일교육현장의 실천사례 및 전망>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 및 워크샵에는 일선에서 차세대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양국교육자 및 관련 학자들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이번 심포지엄 및 워크샵에 발표자로 참가하는 일본측 교육자는 지난 10년간 일본사회과 초청연수에 참가한 OB멤버들로 지금까지 연수가 이룩한 성과 및 효과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3일 심포지엄 1부에서는 본 연구소 한영혜 소장의 환영사와 서울대 사범대학 조영달 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서울사대부설여중 임향신 교사의 “협동학습으로 사회수업하기”, 아베 교사의 “인

류애의 존엄성을 깨달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아이들의 육성”, 치카자와 교사의 “오사카쿠니지마고등학교에서의 학교교류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으며 경인교대 정문성 교수와 수원외고 신혜자 교사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3부에서는 서울사대부속고 박철용 교사의 “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 사회적 쟁점 수업 사례”, 누마타 교사의 “생활을 단면으로 경제를 친밀한 시점에서 고찰하는 사회과공민학습”, 카미무라 교사의 “오키나와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오키나와로”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으며, 경인교대 설규주 교수와 양재고 박중현 교사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에 이어서 장인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24일 워크샵에서는 본 연구소 한영혜 소장과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아리타 신 교수의 인사로 시작해 코지마 교사의 “지리수업으로 전하는 한국”, 니시모토 교사의 “독도 문제에 관련한 수업의 대처와 관련하여”, 니시모토 교사의 “중학교에서의 수업실천 사례로서, 후지사키 교사의 “신학습지도요령이행조치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한 행정지원과 교원 육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일본연구소 언론소개

○ 일본비평

2009년 8월에 창간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에 관해 국내 여러 신문에 관련기사가 실렸다. 우선,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는 운상인 편집장의 “일본연구의 개방적 담론 공간의 창출을 위해 『일본비평』을 창간했다”는 말을 인용하며, “‘말하기’가 아닌 ‘말 걸기’를 시도하며 권위에 의한 일방적 전달보다 소통 확보를 지향한다”는 창간호의 목적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이번호 주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전후 미국의 헤게모니를 내면화하는 내셔널리즘 속에서 지역국가 간 갈등구조를 강화하는 유사한 행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호에서 다루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논의가 ‘한국과 미국’과 같은 주제로 확장돼 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겨레 역시 많은 지면을 들여 각 논문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1853년의 개항에서 1945년 패전 시기까지 근대 일본의 경로를 결정지은 두 번의 체제 교체가 모두 미국의 입회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미국이란 프리즘을 통해 오늘날 일본의 국가 원리와 일본인의 정신적 심층을 탐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도 조선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세계신문등에도 『일본비평』 출간과 관련해서 논문 내용 및 편집의도를 소개하고 있다.

연구활동 동정

○ 한영혜

현지조사: 2009년 10월 7일 ~ 11일(5일간)
일본 도쿄, 일본연구소 기획연구관련 자료조사
및 동아시아 사회학회 참가(토론자)
11월 10일 게이오대학 150주년 기념행사 초청 강연

○ 남기정

현지조사: 2009년 10월 26일 ~ 31일(6일간)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 엔칭 연구소 및
라이샤워 연구소 방문, 자료조사

○ 김효진

논문: <‘귀여운’ 역사는 가능한가? 『헤타리아』를 통해 본 초국가시대의 일본오타쿠 문화>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 28집(9월 15일 간행)

연구소 향후 일정

○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11월 4일, 11일, 18일 수요일에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

○ 연구집담회

11월 4일과 18일 수요일에 연구 집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

○ 일본연구소 기획특별 강연회

일본연구소가 준비한 기획 특별강연회, <21세기 일본의 고등교육상(像)>이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

『일본비평』 제2호에 실릴 논문(연구논단)을 모집합니다.

2010년 2월 15일 발행 예정인 『일본비평』 제2호는, 국내외 인문·사회과학 일본관련 연구자들의 논문을 기다립니다. 내용은 일본에 관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내용에 한하며,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연구논단> 논문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채택된 글의 필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필자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하며, 원고 마감은 11월 15일(일)입니다. 원고는 ‘아래하 한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제출 및 문의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140동 403호/ (02) 880-8503/ email: ijs@snu.ac.kr

○ 일본사회과교사초청연수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23일, 24일 양일간 주최한 <일본사회과교사초청연수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소식도 언론에 소개되었다. 뉴시스는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일본 사회과 교사 초청 연수를 실시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음을 소개하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발전 및 아시아에 있어서의 교육의 역할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에 대해 안내하면서, 이번 심포지엄 및 워크숍에는 일선에서 차세대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양국 교육자들과 관련 학자들이 참가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역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이 모여 독도 분쟁 등 양국간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행사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높이 샀다. 또한 각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까지 소개하면서 이번 심포지움이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양국이 공유하는 많은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 박동성

학술대회: 2009년 10월 21일 ~ 24일(4일간)
목포대학교 및 신안군 증도: 학술대회 및
전문가 회의 참가

○ 서동주

현지조사: 2009년 10월 24일 ~ 28일(5일간)
일본 도쿄, 현지자료 조사 및 수집

○ 이은정

현지조사: 2009년 10월 16일-26일(11일간)
일본 도쿄, 기획연구 및 개인 연구를 위한
현지 자료 조사 및 수집

○ 이지선

논문: 일본 고려악을 통해서 본 고대 한국음악에 관한 연구”
『음악과 민족』 제38호, 민족음악학회, 2009.10.
현지조사: 2009년 9월 27일-10월 4일(8일간), 일본 도쿄